

장수 한우·농특산물 몽골 수출 확대

군, 협의회 열고 안정적 판로 확보 위해 공동마케팅 방안 등 논의

장수 한우와 농특산물이 몽골의 입맛을 사로잡아 올해는 수출을 확대할 전망이다.

장수군에 따르면 2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축산과·농산유통과, 장계농협, 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 관계자를 비롯해 몽골 바이어, 앤에스트레이딩 대표(이운서 대표), 농산유통공사 대행 지사장(소장 김성진)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 한우 및 농특산물의 몽골 수출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내 한우 사육두수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 해소와 장수군 농특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등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장수 한우

와 농특산물의 수출 확대 및 공동마케팅 방안과 23년 장수 한우 수입계획 및 장수군 농특산물 추가 수입 가능 품목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장수군은 우수 농·축·특산물 수출 활성화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에 힘쓰기로 했으며, 이번 협의회에 참여한 기관과 업체는 장수군 농특산물의 공동마케팅을 위한 전략 수립과 지속적인 교류 및 상호 협력 등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장수군은 지난해부터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설립된 한우전문레스토랑에 장수한우를 비롯해 사과, 쌀, 김치 등 장수군 대표 농특산물의 수출 및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또한 몽골 토브아이막 도(道)와 농업, 문화, 경제, 관광, 행정 등 다양한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기반 구축 및 상생발전 도모를 위해 상호 간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해 장수군 농가 소득증대 및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장수 한우 및 장수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많은 몽골 소비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길 바리며, 앞으로 몽골 수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도 수출될 수 있도록 해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세계에 알리고 나이가 농가 경영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현안사업 발굴 총력

군 국가예산 T/F팀 참석 지역 성장 위한 사업 발굴 최선 다짐

무주군은 20일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분야별 회의를 열고 군의 발전과 성장 동력을 가져올 현안사업 발굴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전북연구원 김동영 박사를 비롯한

분야별 연구원을 비롯한 무주군 국가예산 T/F팀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용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최북미술관 다목적영상관에서



무주군은 20일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분야별 회의를 열고 군의 발전과 성장 동력을 가져올 현안사업 발굴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무주군 사업협동·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청취, 무주군 현안 논의 및 국가 예산 신규 사업 발굴 방향 설정 등 군 국가예산 발굴에 대한 견의사항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을 펼쳤다.

무주군청 기획실 김정미 실장은 “지난 3월 기재부에서 2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 운용계획안 확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건전재정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및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템포 빠른 사업 발굴 시스템으로 국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려운 예산 여건을 극복해 무주군 성장·발전을 견인할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앞으로 전북연구원과 무주군 주요사업 현장 방문 및 매월 추진상황 회의 점검 등을 통한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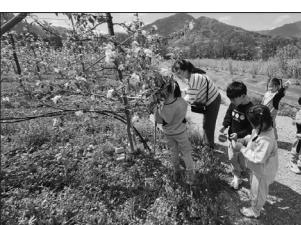
무주군, “사과 꽃 나들이 떠나요”

무주군은 오는 23일까지 무풍 사과 단지에서 사과 꽃 나들이를 체험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딧불 사과의 고장 무주를 알리고 사과 꽃 흐드러진 무풍 사과단지를 소개한다는 취지에서다. 체험행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총 40팀 160여명이 참석, 체험행사에 동참한다.

사과 꽃따기와 사진콘테스트, 사과 팬케이크 만들기와 클레이, 디풀블록으로 사과 액세서리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체험행사가 진행되며, 기준에 분양을 신청했던 사과나무에 이름표 달기도 진행할 수 있다.

반딧불 사과로 명성이 높은 무주군이 무풍면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사과 단지 내 사과수화체험나무 분양과 함께



께 품질이 좋은 무주 사과에 대한 홍보로 농가소득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무주군, 장애인 인권선언·시상식 등 진행

무주군은 20일 무주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무주군지회가 주관한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무주군지회 이대수 회장을 비롯한 무주군에 등록된 장애인과 가족 등 6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장애인 인권선언을 비롯한 시상식 등 기념행사에 함께해 ‘장애인의 날’에 대한 의미를 공유했으며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무주군지회 신봉철 감사와 시각장애인연합회 무주군지회 김병량 감사, 농아인협회 무주군지회 신태식 이사가 군수 표창(도봉)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무주풀마트 이철희 대표가 전북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는 감사패를, 부남면 유승아 씨가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안성면 박경서 씨가 전북능



아인협회에서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에서는 장애인 일자리와 의료, 이동, 교육, 시설 지원을 비롯해 자립과 재활, 활동 지원 서비스 등 다방면에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동권과 여가생활의 보장, 시설보완 등 장애군민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하는 생활밀착형 정책 실현을 위해 앞으로 더 귀 기울이고 눈높이도 맞춰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의회, 제2회 추경예산안 4948억원 확정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는 지난 19일 제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기 종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경자)는 기정예산보다 261억원이 증액된 4,948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번 심사를 통해 일반회계에서 작은영화관 위탁사업 운영비 등 총 7건의 사업에 대해 6억 2,000만원을 감액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해 총 4,948억원의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유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정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건실한 재정 운영에도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산불 재난안전 통신망 훈련 실시

진안군은 20일 부군수실에서 관내 산불 상황을 가정한 재난안전통신망(PS-LTE)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진안소방서, 진안경찰서, 육군제773부대 1대대, 진안군의료원 4개 유관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실제 재난상황을 설정하고 신고·접수부터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보고 및 지휘체계 구축 등 재난안전통신망의 활성화 및 숙달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군은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체계적인 통신망 구축에 있어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할 계획이며, 재난대응 협업부서에 재난안전통신망기기를 보급해 추후 재난현장 중심의 다각적 대응 역량을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농촌 새활력

진안군은 2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MOU 체결국 계절근로자 68명에 대한 사전 교육과 농기배치를 실시했다.

이번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지난 2월 현지에서 필리핀 퀴리노주, 카비테주 마갈레스시와 MOU를 체결하고 3월 현지 면접을 통해 선발된 68명의 필리핀 주민으로 관내 25개 농가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배치됐다.

진안군은 고령화 농촌사회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 농번기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2년 필리핀, 베트남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등

15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바 있으며 2023년도에는 법무부로부터 농가형 119농가 395명, 공공형 50명을 배정받아 계절 근로자 적기 입국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오는 5월에도 농가형 계절근로자 54명과 공공형 계절근로자 50여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며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 20여명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의 숨통을 트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마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